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한 기원 대법회>

## 봉 행 사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을 기원하는 대법회에 참석해 주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시어 국정 운영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참석해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대법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새 정부가 힘찬 첫 발을 내딛은 희망의 시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불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와 행복의 기원을 한 마음으로 올리는 것은 참으로 불자다운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법회가 지극한 의식과 더불어 모든 불자들의 진정어린 마음과 간절한 기도로 온 세상이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한반도는 지금 갈등과 분쟁의 기운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시시각각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신념, 이것이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강력한 의지이어야 합니다.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7.4 남북 공동 성명’의 원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과 북 모두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인도적이고 호혜적 교류, 남북 경제 협력 다양화 및 북한 인프라 구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다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책입니다. 하지만, 짐짓 평화를 말하면서도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는 이들로 인해 장애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양 극단을 벗어난 지혜로운 길, 중도(中道)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부대중 모두 중도의 가르침 속에서 공존과 상생을 염원하여, 국민의 행복을 가꾸는 국가 정책이 온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지지와 협력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에 있어 경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 등 공동체가 흔들리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이들이 겪는 경제적인 고통은 온 나라가 짊어져야 할 아픔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한 면에는 경제 활동의 성과가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현실의 문제와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정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박탈당한 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경제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 경제’가 새 정부에서 중요하게 제안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조(創造)란 단순히 새로 만들어짐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는 인연(因緣)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무관해 보이던 어떤 물질이나 현상이 새로운 인연을 이루고 관계 맺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물질이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 시장과 시장, 사람과 사람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서로 만나고 교류해야 합니다. ‘창조 경제’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시대의 문화 창조 또한 선대의 공덕으로 이어 온 인연입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국민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찬란한 전통 문화를 간직한 나라입니다. 전통 문화의 융성은 올바른 보전(保全)을 위한 정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화적 자산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교계 또한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만큼 책임감이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문화는 고유의 특성이 있되 배타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불교문화가 소중하다 해서 다른 문화를 경시하거나 폄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조화가 아직 부족하고 소홀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생각과 존재에 대해 받아들이고 함께 하려는 배려와 포용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가 활성화하고 문화가 융성하면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면 굳건한 평화의 바탕 위에 통일이 다가올 것이고, 풍요로움과 나눔 속에 새로운 문화가 싹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의 간절한 기원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이 곧 세계 평화와 온 생명의 평화, 모든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 정부 출범이라는 희망찬 순간의 한 편에 마주하게 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대법회>에 참석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드리며, 대통령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원 대법회를 계기로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이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 온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길에 힘차게 나서게 되기를 부처님 전에 엮드려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4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